〈제 9 호〉

함·즐·함·울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15)

97교회 표어
"예비하라"
(눅 3:4)

발 행 : 출판부 (본 선교지는 두 달마다 발행됩니다) 1997년 11월

안사무엘 목사의 가정 이야기

아내에 대하여 1. 내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사를 나에게 이끌어 오시더라 이에 내가 아담의 말이 기억나더니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2. 이에 내가 생각하기를 내 뼈와 살처럼 여기며 살겠노라 작정하니라 3. 그러나 여자가 가로되 제사장에게는 한 몸을 이루지 않겠노라 하니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 가로되 무엇이 문제가 되더냐 물으시니 4.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사장에게 가면 허기질까 염려함이라 이에 사무엘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방성대곡하며 목놓아 울더라 5. 내가 딸을 낳았으니 예선이라 이름하더라 이는'예수님의 선물,이라 하니 원뜻은 밝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라 지었더라 6. 아내와 한 몸을 이뤄 장막에 거하니 아내가 망치와 못으로 담대히 벽에 거울을 달아 내리매 내가 놀라 가로되 이것이 여자인가 하더라 7. 이에 나는 옷을 다리고 설거지 하기를 즐기매 하나님은 참으로 서로에게 맞는 배필을 주셨다 함이라 8. 아내가 음식을 만들매 너무 싱겁고 입에 맞지 않음이니 이에 내가 속으로 이것도 음식인가 하니 아내가 또 속으로 가로되 나도 안다 하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음식을 먹었더라 9. 내가 아내와 동거한지 오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이 의선을 주셨더라 두아이를 양육하며 고생하는 아내가 측은하기에 아내에게 가로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니 아무 말이 없더라 10. 이에 내가 주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께서 종의 형편을 아시오매 아내를 위로해 달라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시니 이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봄 이더라

예선이에 대하여 1. 일천구백구십사년 이월 이십이일 그때에 예선이가 처음 난 날이더니 삼점 육킬로그램의 건강한 아이임이러라 2. 이에 그 아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아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기를 기도하더니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드림이라 3.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선이가 잠투정이 매우 심하더니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마구 울어대더라 4. 이에 단 잠을 빼앗아간 딸을 안아 흔들며 가로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아비가 무척 고통스럽다 하니 아이는 더욱 보채고 울더라 5. 그렇게 울기를 한 시간이 넘어 아비는 너무 힘들어 아이를 바닥에 던져 버리고 싶더라 6. 이에 주께서 내 심중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하시니 내가 응답하였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던져 버리고 싶을 때가 어찌 한 두 번이었더냐 하시니 7. 갑자기 내 이전 모습이 머리에 스쳐감이라 이에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느냐 하며 아이를 보고 이르되 울어라 울어라 하며 오히려 달래더라 8. 아이가 자라가매 유치원에 다님이더라 9. 유치원을 마치고 오매 내가 물어 가로되 예선아 오늘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버스 탔다 함이라 10. 이는 아이가 유치원에 오고 갈 때 버스를 타고 오고 감을 뜻함이라 11. 아이의 말을 들은 아비가 심중에 웃으며 생각하기를 그 대답이 참으로 유치함이더라 12. 이에 주께서 즉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아이가 유치하니 유치원에 간다 함이러라 13. 이에 내가 또 생각하기를 주께서 내게 물으실 때마다 나의 대답이 항상 예선이와 같았음을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지더라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의선이에 대하여 1.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비의 어머니가 가로되 아들이다 하니 이에 내가 웃으며 어머니가 나보다 더 좋아한다 함이더라 2. 자기 누이의 이름은 예선이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여 깊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가로되 본선이라 하라 하여 내가 심중에 고민하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아이의 이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하시더라 3. 며칠 후 내가 섬기는 성막의 대제사장이 내게 묻지 오되(대제사장은 이재철이더라) 4. 아이가 네게 아빠 하고 부르더냐 물으시니 어찌 갓난 아기가 벌써 아빠하고 부를까 하고 웃으며 생각하기를 대제사장에게 있는 네 명의 아이들은 낳자마자 아빠하고 부른 것 같았더라 5. 이에 내가 이르되 대제사장이 별말씀을 다 한다 하고 웃으니 주위 사람도 함께 웃더라 6. 의선이가 태어난 후 첫 안식일을 맞으매 내가 제사를 드리려 하여 제단 위에 서서 웃었더니 사람들이 일러 가로되 저 제사장이 아들을 낳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 함일러라 7.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 웃은 연고는 이러하더니 아이를 낳기 바로 전 안식날에 김성식 제사장이 나에게 가로되 제사를 드리는 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얼굴을 펴라 하였기로 8. 이에 내가 순종하여 다음 안식일에 제단 위에 올라 굳은 얼굴을 펴며 노래하고 웃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되 저 사람이 아들 낳아 좋아서 저런다 하더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더라 9. 이에 내가 그 소리를 싫어하여 듣기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 안식일부터 그 이전의 굳은 얼굴로 돌아감이 낫겠더라 10. 사람들의 말이 쉬임 없이 네가 아들을 낳아 입이 귀에까지 걸리니 참으로 그러하더냐 하니 11. 이에 내가 가로되 아니라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니 그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함이더라(셀라) 12. 아이가 변을 볼 때나 먹은 것을 트림할 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더니 아이의 변 냄새는 구수하고 향기롭더라 저가 트림할 때도 냄새가 역겹지 아니하니 이는 제 어미의 젖을 먹음이라 생각하더라 13. 이에 내가 생각하기를 저 아이가 사람이 먹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제 어미의 젖을 먹으니 그 냄새가 구수하겠다 함이라 14. 곧이어 내가 베드로의 교훈을 생각하기를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더니 15. 사람이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 하면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만이 하나님께 올라가겠더라 믿음이더라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은희 성도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신선한 바람과 낙엽을 맞이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머지않아 가을도 지나고 따스한 차 한잔이 그리울 겨울이 시작되겠지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특별히 이룬 것도 없는데…. 흐르는 시간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로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해내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와 함께 작은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불편했기에 장애인 직장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였고, 전 그곳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부족함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마음 정리와 준비 끝에 1년 만에 새로운 저의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면목동에 작은 평수의 책대여점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삶을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몸이었기에 여러 번 주저앉아야만 했고 눈물로써 주님께 호소해야할 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불편했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했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붙드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의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새로이 경험하고 강인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교우님들의 염려와 관심으로 마음이 따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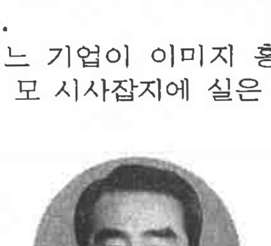
이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고마운 여러 교우님과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마음뿐이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따스한 분들이 계시기에 비록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따스한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주위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받은 만큼 아주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들

- 에이즈 백신 생체실험 대상으로 자원한 의사들 이야기
-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 우애있는 형제들의 이야기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더 귀하고 감동적…



김영수 집사

(전 문화체육부 장관)

지난 9월21일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국제 에이즈치료의사협회(IAPAC)는 협회 회원인 50명의 의사 및 공중보건 관계자가 에이즈 백신 생체실험 대상자가 되기를 자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계획은 살아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로 만든 실험용 백신을 자신들의 몸에 주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생명을 거는 것이다.

이들의 용기있는 결정은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고, 이같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마침내는 에이즈를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문득 무엇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가(?) 하는 화두에 생각이 미쳤다. 아마 가을철이면 생각나는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연유된 때문이리라.

우리는 흔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극복한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곤 한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형설의 공을 쌓아 성공한 사람, 꾸준한 훈련으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체육인이나 탐험가들, 성경의 요셉같이 사악한 유혹을 물리친 꿋꿋한 신념의 사람들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격려해 준다.

그러나 더 큰 감동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까?

효성이 지극한 자녀, 자식을 위해 목숨마저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 우애있는 형제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한다.

남녀간의 지순한 사랑, 관포지교 같은 우정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자기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낯선 이웃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더더욱 우리를 감동케 한다.

어느 기업이 이미지 홍보를 위해 모 시사잡지에 실은 '어깨를 빌려 준 여인,의 이야기.

지하철을 탄 어느 처녀는 자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자기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든 것을 깨울 수가 없어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가 다시 반대편 지하철을 탔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 순국하신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야기.

아마 에이즈 퇴치를 위한 50인 의사들의 결의도 이러한 유의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사랑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자기 극복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며, 그만큼 그 감동의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만큼 더 귀하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 희생 차원에서 가장 큰 사랑 이야기는 뭐니뭐니 해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믿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속죄양이 되신 사랑 이야기야말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구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 스토리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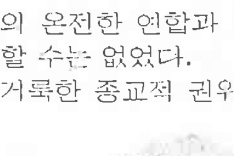
현대 문명의 위기는 한 마디로 자기 중심적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웃과 사회를 영원한 경쟁자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의 가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며, 우리 모두를 오직 '나' 그리고 '지금' 밖에 모르는 우매한 자로 전락케 한다.

이같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기댈 만한 유일한 대안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희생에 터잡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을, 우리 모두 자기 중심에서 과감히 벗어나 가까이는 자기 가족부터, 크게는 이름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떨쳐 나서자.

그리하여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엮어 나가자.

잔느 귀용



강석영 전도사

지난 여름, 77구역의 어느 집사님께서 꼭 읽어 볼 만한 책이라고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해주셨다. 평소에 늘 시를 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아온 터라 빨리 사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차일피일하다가 9월말이 다 되어서야 책을 구하게 되었다.

특별한 생각없이 한쪽 두쪽 책장을 넘기던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자의 글 속으로 흠뻑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전력투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해 오던 나에게, 저자의 깊이 있는 영성의 세계는 목마른 자에게 한 잔의 생수와도 같은 시원함 바로 그것이었다.

★ ★ ★

중세의 유럽, 타락한 교회와 부패했던 왕정시대에 부유한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저자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자신의 모두를 드렸던 사람이었다.

당시의 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했었고, 사제들도 말씀보다는 세속 권력과 야합하여 교회정치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던 시절이었다. 잔느 귀용은 이런 신앙의 황무지 속에서 고독하게 피어난 한 송이 장미였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녀는 죽을 때까지 온갖 오해와 모욕, 박해와 투옥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불안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치유의 샘에서 흘러 나오는 평강과 의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았다.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그녀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방해할 수는 없었다.

거룩한 종교적 권위로 위장한 교회와 인본주의로 가득한 권세있는 교인들이 끊임 없이 그녀를 협박하고 유혹했지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녀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막지는 못했다.

★ ★ ★

모든 속박과 굴레, 대적들 가운데서도 참된 내적 평화를 소유한 사람/자신에게 다가온 갖가지 고난과 학대,반대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이 겪으신 아픔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자신까지도 비난할 수 있었던 사람/모든 눌림과 감옥, 굴종에의 강요...에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주의 나라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과도 싸움을 선포했던 여인/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을 강화하려던 대적자들의 계획을 폭로하고, 순결한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잡기 위해 세상 전부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용기있는 여인/주님을 알아가는 일과, 주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자신을 진보시키기 위해 모두를 투자한 참 하나님의 사람///

★ ★ ★

잔느 귀용! 그녀는 믿음, 진리, 용기, 온유의 삶을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 어두웠던 시절, 무서운 핍박의 구름을 뚫고 한 줄기 진리의 빛을 갈망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했던 여인/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던 여인/ 비록 육체는 압박과 질시의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해 영원히 자유했던 사랑스런 여인…….

★ ★ ★

단 며칠, 한 권의 책을 읽고서 잔느 귀용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엄청난 감격과 승리를 평가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나는 기뻤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넘치도록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요14:27)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타락한 교회와 부패했던 왕정시대의 중세 유럽
단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가지 이유로
갖은 모욕과 박해를 감수해온 여인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영원히 자유했던
여인 잔느 귀용…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때

한득현 집사

호산나 성가대는 1부 예배 후 성가 연습실이 없는 관계로 예배실에 그대로 남아 30분간 성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연습이라 1초라도 아끼기 위하여 아침 간식 먹는 것도 생략하였는데 연습이 막 절정에 이를 때쯤이면 장로님의 차량안내 방송으로 연습을 돌연 중단해야 하는 해프닝이 매주 발생됩니다.

차량안내 방송인즉 다른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되고 있는 XX번호 차량을 속히 빼내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방송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성도님들과, 이로 인해 안내 방송하시는 장로님이 번번이 답답한 속앓이를 겪으실 것을 생각하니, 예배 광고시 이와 같은 차량주차에 대한 권면이나 책망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좀더 젊었을 때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지금보다 강해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나 직분자가 평신도에게 제법 강도 높은 권면이나 책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권면이나 책망 받는 자가 큰 비판이나 불평없이 순복해 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민주화 때문인지 교회내에서의 직접적인 권면이나 책망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는 인격적인 문제라 하여 상호 양식에 맡기며 덮어 버리는 것만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이나 윤리면에서 심각한 병폐를 초래한 것은 자율과 개성만을 중시하여 권면이나 책망의 소리를 너무도 아낀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과 매를 아끼므로 훗날 방종한 어른을 만들 수도 있듯이 권면이나 책망이 필요할 때에 서슴없이 꾸짖지 아니하면 바르지 못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목격하고도 외면하는 어른들, 이를 조장하는 어른들을 묵과하는 또 다른 어른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 어른된 크리스천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정 신자입니까?의 저자 오르띠즈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목사들은 교인들의 삶을 형성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떠나 갈까 두려워서 바르게 권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삶을 형성시켜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며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권면을 해야 하고 만일 권면을 해도 계속 듣지 않으면 책망을 해야 하는것이 삶을 바르게 형성시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아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만을 바랄 뿐,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권면이나 책망을 주려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타인 무관심의 시대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배 참석에 자주 빠져도, 예배나 모임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도, 성물을 함부로 다루고 사용해도, 주어진 임무를 적당히 이행해도 어느 누구 한사람 책망하지 않으며 또한 책망 받으려 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인지, 무관심 속의 방치인지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도로 세워지기 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은 물론, 말씀대로 행함에 대한 바른 권면과 책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의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바르지 못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수방관의 잘못인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으신 분은 사랑으로서의 권면과 책망을 서슴 없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고, 잘못을 지적 받으신 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 들임으로 잘 조화된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이나 윤리면에서 심각한 병폐를 초래한 것은 자율과 개성만을 중시하여 권면이나 책망의 소리를 너무도 아낀데서도 그 원인을 들 수 있을것 입니다.

권면이나 책망이 필요할 때에 서슴없이 꾸짖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엔…

이영자 권사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어릴적 듣던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청아한 소리가 그리워 집니다.

가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 덥기도 하였지만 참으로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연쇄부도,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청소년 범죄, KAL기 참사, 선거를 앞두고 기댈곳 없이 표류하는 듯한 지루한 여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특히 KAL기 참사 뒤의 애틋한 사연을 통하여 우리는'함·즐·함·울,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부부애, 모성애, 살신성인의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름과 고통이라도 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와 결실의 가을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도 뜨거운 햇빛과 비로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터진 밤송이는 자신을 찢기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벌어진 밤송이에서 우리의 할례 없이는 남을 기쁘게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한 알의 밀알로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죽음에서 종파를 초월한 애도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못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알찬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 동물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하여 열심히 지방 축적을 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해 자기의 분신을 미련 없이 떠나 보냅니다.

우리도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에 감사하고 부족했던 노력을 반성하며 성실로 이 가을을 채워 갑시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넉넉함을 겸손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을 이 가을에 배웁시다. 지금 당장 열매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낙엽 될지라도 기도가 우리의 호흡되게 합시다.

낙엽은 내년의 열매를 위한 기약 임을 잊지 맙시다. 힘들어질 땐 '함·즐·함·울'의 동역자들을 생각합시다. 서로의 즐거움으로 함께 웃고 서로의 슬픔으로 함께 우는 '함·즐·함·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주적인 언어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 가을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씁시다. 이것이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해 가는 길이 아닐까요?

* * *

없을지라도

왜 모두 감사하질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곳 어디든 자기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치는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는다.
하루 세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 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 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9월7일 감사주일 올림픽경기장
설교문중에서 이재철 목사)

노인·외국인근로자 돕기 의료봉사 참여 바랍니다

의사·약사·의과 대학생·일반 봉사교인 등 20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부(부장 최상용 집사)는 강남 YMCA노인대학과 연계하여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30~40여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에는 구의동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교회(유해근 목사)에서 내과, 외과, 치과의사와 의과대학생 4~5명이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해외 의료선교 및 수도권 계절별 순회진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봉사활동에 동참할 교우는 최상용 집사(☎546-2823)에게 연락하면 된다.

차량안내 협조 바랍니다

안내 2부(부장 문창복 장로피택자)는 주일예배 및 교회 행사시에 차량의 원활한 주차와 질서를 위하여 주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봉사하고 있다.

교우 여러분의 주차질서 협조를 바라고 있다.

경조부에서 알립니다

경조부(부장 김경희 권사·이정순 집사)에서는 교우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현재 45명의 부원으로는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장로·안수집사·권사선출

지난 9월 28일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5인 피택을 위한 1차 투표를 실시했으나 유효 득표수에 미달하여 10월 5일 2차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로 1명, 안수집사 2명, 권사 1명이 선출 되었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문창복, 안수집사 전세표·오세윤, 권사 장순현.

제3남선교회 월례회 개최

제3남선교회(회장 조성득 집사)는 9월 27일 토요일 YMCA 교육관에서 부부동반으로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 나영일 집사의 '건강과 운동'이라는 주제로 40대의 건강관리와 성인병 예방에 대한 강좌가 있었고 이어 김완중 집사의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강좌도 있었다.

주방 일손이 모자랍니다

주일 교우님들이 맛있게 드는 국수는 주방부원들이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숨은 봉사로 공급되고 있다.

주방 봉사에 동참할 교우께서는 교회로 연락하면 된다.

정한조·김효숙 전도사 목사안수 받아

정한조 전도사와 김효숙 전도사는 지난 10월 22일 수요일 목사안수를 받았다.

사진 제출 바랍니다 11월16일(주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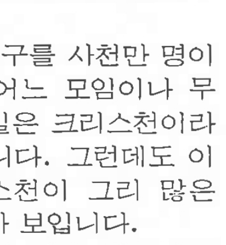
98년도 교인 사진수첩용 사진을 11월 16일(주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미 사진을 제출하여 교인사진수첩에 게재되어 있는 교우도 최근의 사진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인동정

〈개업〉
▲김인아집사: 커피숍 '로뎀나무 아래서' 강남구 도곡2동 신우빌딩☎571-5870
▲권오복성도: 섬유계통 '인터스타' 잠원동 잠원연합빌딩 204호 ☎5959-767~8
▲엄인호성도: 엄인호 신경통증 클리닉 ☎591-8275
〈이사〉
▲김선욱·김화선집사: 과천시 과천타워 금호A 702호 ☎507-4663
▲성백술장로·오병희권사: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1227-8
▲김영수·정혜원집사: 동작구 사당동 극동A110-404 ☎3476-0415
▲황정연·이지연집사: 고양시 일산동 ☎0344-906-0705
▲엄애경: 의정부시 신곡동 추동A 103-1003 ☎0351-846-8659
▲천경우·이영화집사: 분당 수내동 푸른마을 쌍용A 611-1405 ☎0342-716-3849
▲진대우·이은영: 송파구 가락2동 프라자A5-403 ☎408-9028
▲한상곤·윤신옥집사: 남양주시 금곡리 ☎0346-595-8386
〈소천〉
▲김용석·강유순집사 부친(9월29일 21구역)
▲한득현·이승숙집사 부친(10월8일 37구역)
▲교역자 이기용·김효숙목사 부친(9월20일)
〈출산〉
▲신용준·이소윤: 득녀(59구역)
▲신철범목사·이진경: 득녀
▲김진수전도사·유은주: 득남
〈출국〉
▲윤나리: 미국(청1, 10월3일)
〈전역〉
▲김태경: 김근수·오점덕 차남(16구역)
▲김세진: 김기성·최귀선집사 장남(16구역)
▲홍인표: 홍순익·한정신집사 장남(72구역)
〈입대〉
▲손용득: 손달진·신관수집사 장남(59구역)
〈출판〉
▲이데보라 선교사: 주님 앞으로 돌아온 어느 불우한 여성의 고백-"그래도 여자로 살고 싶었는데"
출판사 사람과 사람

하나가 되어…



이강헌 협동장로

지난 9월 28일 한국 축구팀의 승리는 모처럼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쾌거였습니다.

이 경기가 상대편 나리에서 치뤄져 우리 선수들이 자칫 주눅들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그 승리가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만육천 여명의 관중이 입장했던 동경 요요기 국립경기장은 일본인 관중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경기장 한편 관전에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한국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응원을 위해 단체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구하기 어려운 입장권을 어렵사리 구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인 관중들에 섞여 여기저기 흩어져 앉지 아니하고 한 곳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한국팀을 응원 하려면 한국인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팀은 응원전에서도 결코 일본에 지지 않았습니다. 적지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눅들지 않고 뛸 수 있도록 함성을 내어 응원했던 것입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나는 우리들 크리스천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리스천이 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 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사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어느 모임이나 무리중 사분의 일은 크리스천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에 크리스천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모든 곳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고 더욱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는 바르고 충실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 다른 무리에 섞이면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어둡게 흐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5:14"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 주길 원하십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길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그 빛임을 포기하여 등경 위가 아닌 발 아래에 두고 있거나 다른 빛과 합하여 큰 빛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방은 작은 전구 하나 만으로는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저희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17:22"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둠속에서 기도의 작은 빛들은 일제히 등경 위에 올려 놓고 큰빛을 이루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악한 일 어두운 일이 행해질 때 크리스천들은 일제히 불을 켭시다.

누구라도 좋으니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엽시다. 옆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도 또다른 크리스천도 같이 입을 엽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지만 이윽고 무리중의 사분의 일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함성이 되어 악을 제압할 수 있을것 입니다. 동경 요요기 경기장에서 한국인들이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곳에 모이고 목소리를 모아 만들어 낸 응원의 함성처럼 의로운 승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악과 무질서가 만연한 이 사회에 식상하고 체념해 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든든한 믿음을 주게 되고 그들도 우리 무리에 동참하고 싶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서적 안내

위기에 처한 기독교인과 교회가 사는 길
예수 바로 믿기
한건산 지음, 예진원, 값 4,800원

불경기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는 불경기가 없다
박두현 지음, 토기장이, 값 4,500원

생활방식으로서의 전도
빛으로 소금으로
레베카 피펏 지음, IVP, 값 4,500원

이웃과 가족을 사이비 종교에서 구출하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
사이비 종교/그 마력과 중독성에서 벗어 나려면
위고 수탐 지음, 홍성사, 값 6,000원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감격!
창세기 강해설교2 〈4-11장〉
대홍수, 그리고 무지개 언약
김서택 지음, 홍성사, 값 8,000원